

# 성서 번역가 탁사 최병헌의 잠언(23장)과 시편(32편, 122편)과 역대하(6-7장) 번역문 분석 - 「조선(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의 경우 -

이환진\*

## 1. 들어가는 말

탁사 최병헌 목사는 성경 번역가이다.<sup>1)</sup> 탁사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성서번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다. 성서번역은 토착화의 시작이요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외래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경전을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이 성경번역 작업인 까닭이다. 그는 1925년에 개역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鮮漢文 創世記 改譯』을 펴냈다.<sup>2)</sup> 당시 그의 창세기 번역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가 번역한 창세기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창세기”의 전신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탁사 최병헌 목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탁사 최병헌 목사가 성경 가운데에서도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우리말로 옮겼다는 점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경(經)의 사람”이었던 탁사의 수많은 저작을 보면 성경을 그대로 외워 그의 신학 작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당시 한문을 아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 감리교신학대학교 초빙교수, 구약학

1)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 문화: 천주교와 개신교의 만남』(서울: 기독교문사, 1985), 494-495.

2) 『鮮漢文 創世記 改譯』(경성: 대영성서공회, 1925).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이 『鮮漢文 創世記 改譯』은 1925년 11월 30일에 발행한 것이다. 순 한글로만 된 『창세기 기억』은 같은 해 5월 9일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의 전무용 부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다(2005년 7월 4일자 이메일): “『鮮漢文 創世記 改譯』은 순한글로 번역 인쇄된 『창세기 기억』을 한자로 바꾸어 펴낸 것이다. 한자로 바꾼 용어는 한문 『대표본』을 간간이 따르기는 했으나, 대부분 『창세기 기억』의 독자적 번역을 한자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씨’를 ‘地’로 ‘있고’를 ‘在하고’로 바꾼 것처럼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꾼 작업도 번역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기억 1:2

싸이 혼돈하고 공허하야 흑암이 김흠우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鮮漢文 創世記 改譯 1:2

地가 混沌하고 空虛하야 黑暗이 김흠우에 在하고 하늘의 神은 水面에 運行하시더라

높았던 성경은 한문 『대표본』(代表本, 1854년)이었는데,<sup>3)</sup> 탁사는 이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듯하다. 아직까지도 서지 정리가 되지 않은 그의 수많은 책과 글에는 『대표본』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탁사 최병헌 목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구약을 번역한 성서 번역가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1897년부터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매 주마다 발행한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sup>4)</sup> 속에 들어 있는 구약본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약본문 중에서도 1897년에 번역하여 실은 잠언 23장, 시편 32편과 122편, 역대기 6-7장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른바 회보 역에는 한문성경 『대표본』을 옮긴 흔적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해서 탁사는 『대표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번역어를 찾아 낼 수 있는 한 토박이말로 옮기려 했던 흔적 또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문성경 『대표본』과 함께 영어 *Revised Version*(이하 RV로 표기)도<sup>5)</sup> 같이 비교해 볼 것이다.

## 2. 「조선(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속의 구약

1898년 미이미교회(북감리교회) 연환회(연회)에서 아펜젤러의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에 대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sup>6)</sup>

… 주일학교 공과 내용을 두 페이지에 할애하여 할애하여 출판하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연합회가 자원을 원조하므로 본지가 이론상으로는 자립하고 있다. 로드와일러 양이 신약성서의 공과를 해설했고, 존스 형제는 문제를 냈다. 믿음의 형제 최씨와 송씨는 오른손과 같이 나를 돕고 있다. …

- 
- 3) 이 책의 중국어 이름은 『文理舊新約聖書』이고, 영어 이름은 *Wenti Bible*(Delegates' Version)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본』으로 통칭한다. 이 역본의 번역 배경에 대해서는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박사 회갑기념 제2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40-447 참조. 구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19세기 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한문성경으로 구약을 공부한 듯하다. 1898년 9월 7일자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의 5쪽에 실려 있는 “송귀용씨의 보단”이라는 글에는 “교우 몇사람이 한문 성경을 공부코져 호는고로 여가 잇는터로 7러쳐 주었시며”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보면 당시 한문 성경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성경인 것을 알 수 있다.
- 4) 이 회보의 원 제목은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이다. 한국감리교회사학회에서 영인하면서 영인본의 제목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로 붙였다. 나라 이름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1897년 12월 8일자부터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가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로 바뀌었다.
- 5) *Revised Version*(영어 『개역』)의 본문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The American Revision Committee, ed.,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for American Bible Society, 1901).
- 6) 헨리 G. 아펜젤러, 『헨리 G. 아펜젤러의 보고서』, 78의 번역을 인용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회보에 실려 있는 성경본문과 주석 그리고 묻는 말은 따로 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석과 묻는 말은 로드와일러와 존스가 각각 맡아서 작업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경본문은 누가 했는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믿음의 형제 최씨와 송씨가 오른손과 같이 나를 돕고 있다”는 표현은 본문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작업을 이 두 사람도 도와서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송씨”는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으나 “최씨”는 분명히 탁사 최병헌 목사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아래의 본문분석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구약본문 번역이 주로 한문 『대표본』인 점을 생각하면 탁사가 그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펜젤러가 한문성경을 번역했다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한문에 능한 유학자였던 탁사의 주도적 작업으로 이해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올 듯하다.

회보의 구약본문은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공부용 본문이고 또 하나는 예배문 속의 본문이다. 아래 분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두 가지 본문 모두 번역대본은 한문 『대표본』이다. 그런데 성경공부용 본문보다는 예배용 본문에 영어 RV를 따른 흔적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둘 다 탁사 최병헌 목사가 번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예배용 본문은 예배를 이끄는 이가 아펜젤러였기 때문에 RV를 참조하여 내용을 좁고쳤을 것으로 짐작한다. 여기에 반해 성경공부용 본문의 경우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탁사 최병헌 목사가 정동제일교회의 주일학교의 책임자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보면 성경공부용 본문까지 철저하게 아펜젤러가 번역을 고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다. 예배문 속에 들어가 있는 구약본문은 시편 122편과 역대하 6-7장이다. 이와는 달리 잠언이나 시편 32편 또는 창세기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 본문은 성경공부용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성경공부용 구약본문과는 다르게 예배문 속의 본문은 영어성경 RV를 많이 참조하여 옹근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예배문 속의 역대기 본문은 한문 『대표본』을 더 많이 따른 흔적이 있긴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가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시편 122편과 역대기 본문은 아펜젤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번역이고, 시편 32편과 여타 구약본문은 탁사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간 번역이라는 점이다. 19세기 말 성서번역위원회의 번역원칙에도 선교사들은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성경 RV를 번역하고 한국인들은 한문성경 『대표본』을 번역하였다는 점<sup>7)</sup>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7)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3 (1896), 471 이하; 이택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437 참조.

아래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책은 구약 가운데에서 잠언(23장)과 시편 두 편(32편, 122편) 그리고 역대기(대하 6-7장) 한글번역 본문이다. 잠언 일부가 번역된 것은 술먹지 말라는 교훈을 하기 위해 특별히 술에 관한 잠언의 본문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시편 가운데 122편과 역대하 6-7장은 성경공부 용이 아니라 정동제 일교회 헌당예배의 예배문에 교독하기 위해 번역한 본문이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사무엘서를 읽어가다가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한 본문이다.

## 2.1.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속의 잠언

이 회보 속에는 구약 가운데에서도 성문서가 몇 군데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잠언이 특이하다. 이 공과의 제목은 “술취하는 것이 큰 해라”로 붙여 있다.<sup>8)</sup> 성경 본문은 잠언 23:19-35이다. 이 본문은 한문성경 『대표본』(1854년)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위에는 RV와 『대표본』을,<sup>9)</sup> 아래에는 회보에 실려 있는 본문을 나란히 인용해 본다.

23:19 Hear thou, my son, and be wise, and guide thy heart in the way.

<sup>一</sup>九 爾小子,聽我言而得智,守本心而尊道.

<sup>一</sup>九 너희 적은 아들들은 내 말을 듯고 지혜를 얻으며 본 마음을 직혀 도를 좃치며

23:20 Be not among winebibbers; among riotous eaters of flesh:

<sup>二</sup>十 蕩檢者勿交,沉湎者勿友,

<sup>二</sup>十 방탕한 자를 스귀지 말며 침면 한 자를 벗 삼지 말라

23:21 For the drunkard and the glutton shall come to poverty: and drowsiness shall clothe a man with rags.

<sup>二</sup>一 蓋饕餮甘酒,必致貧,思寢之人必衣敝.

<sup>二</sup>一 술 먹기를 탐 하는 자는 가난 하고 자기를 도화 하는 자는 찌러진 오슬 낚는 나라

23:22 Hearken unto thy father that begat thee, and depise not thy mother when she is old.

8)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제1권 제21호(1897년 6월 23일).

9) 위에 인용한 『대표본』은 1933년 영국성서공회가 상하이에서 펴낸 『文理 新舊約聖書』 聖書公會印發이고, 영어 이름은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1933)(Ed. No. 2908)이다.

二二 父母生爾,雖至老邁,宜聽勿棄.

二二 부모가 너를 낳았스니 비록 늙어도 순종 하고 버리지 마라

23:23 Buy the truth, and sell it not; Yea, wisdom, and instruction, and understanding.

二三 宜求智慧,服膺真理.

二三 맞당히 지혜를 직회고 일치 말거시니

23:24 The father of the righteous shall greatly rejoice: and he that begetteth a wise child shall have joy of them.

23:25 Let thy father and thy mother shall be glad, and she that bare thee rejoice.

二四二五 生子善且智,父必欣喜,母亦歡樂.

二四二五 즈식을 나히 착하고 또 지혜가 잇스면 아버가 깃버 하고 어미가 또 혼 즐거  
하느니라

23:26 My son, give me thy heart, and let thine eyes delight in my ways.

二六 爾小子心歸乎我,目注乎道.

二六 너희 적은 아들은 마음을 내게로 돌려 보내고 눈을 도에다 두어라

23:27 For a harlot is a deep ditch; and a foreign woman is a narrow pit.

二七 妓女猶深坑,淫婦若陷阱

二七 기싱은 김흔 구렁 갓고 음란흔 부녀는 함정 갓히니

23:28 Yea, she lieth in wait as a robber, and increaseth the treacherous among men.

二八 隨在匿跡以誘人,使蹈罪愆

二八 처처에 종적을 숨기고 사름을 유혹 하여 죄에 빠지게 하느니라

23:29 Who has woe? who hath sorrow? who hath contentious? Who hath complaining? who hath wounds without cause? Who hath redness of eyes?

二九 誰遭禍患,誰起爭競,誰構怨尤,誰目赤身傷,出於無因,

二九 누가 환난을 만나며 누가 송스를 하며 누가 원망을 미지며 누가 무고이 몸을  
상 하며 누가 눈을 붉게 하느뇨

23:30 They that tarry long at the wine; they that seek out mixed wine.

三十 誰耽麴蘖,嘗旨否,調劑甚厚者則若是.

三十 오직 밤을 련 하야 술을 마시며 농 혼 술을 조합 하야

23:31 Look not thou upon the wine when it is red, when it sparketh in the cup,  
when it goeth down smoothly.

三一 勿以觀酒爲樂,其色貴朱,入爵則沸,依法而流,

三一 술이 붉은 빗치 발 흐며 잔 속에 빗치 아름다오며 법디로 흘너인 후에 느려  
가면 화창 흐거슬 보지 마라

23:32 At the last it biteth like a serpent, and stingeth like an adder.

三二 不知其終,酒傷若蛇,其毒若蝮,

三二 나종에 너를 해 흐기는 비암이 무는 것 꺾고 그 독이 독스 꺾힘이라

23:33 Thine eyes shall behold strange things, and thine heart shall utter perverse  
things.

三三 既沉湎於酒,則目注淫婦,心思邪僻,

三三 임의 술에 침면 흐면 음란 흐 녀인의게 눈을 두고 므음에 사특 함을 생각 흐  
느니

23:34 Yea, thou shalt be as he that lieth down in the midst of the sea, or as he that  
lieth upon the top of a mast.

三四 其危也,若偃息海中,高枕桅上.

三四 그 위터힘은 바다 속에 자는 것 꺾고 돛디 우헤서 누은 것 꺾흐니

23:35 They have stricken me, shalt thou say, and I was not hurt; They have beaten  
me, and I felt it not: When shall I awake? I will seek it yet again.

三五 勿自謂受擊而不傷,醉爲無害,醒而再飲.

三五 나를 찌려도 압흐지 안코 내가 마져 상 흐여도 생각 흐지 안코 어느때 찌겟  
느뇨 흐며 내가 또 다시 술을 좇느니라

이렇게 두 역본을 비교해 보면 회보역의 잠언은 분명히 한문성경 『대표본』을 거의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용어를 그대로 빌려 쓴 경우도 있고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적은 아들들은 내 말을 들고 지혜를 얻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 『대표본』의 번역인 것이 금새 눈에 띈다. 특히 “적은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대표본』의 “小子”를 따른 것이다. RV는 “내 아들아”(my son)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아들)들”이라는 복수형태로 바꾼 것이 다를 뿐이다. 26절에서는 같은 말을 단수(“적은 아들”)로 읽기도 하였다. 하반절의 경우 RV는 “네 마음을 길을 따라 이끌라”로, 한문 『대표본』은 “본 마음을 지켜 도(길)를 따르라”(守本心而尊道)로 옮길 수 있다. 회보역은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회보역의 “본 마음”이란 표현은 RV의 “네 마음”과 달리 한문 『대표본』의 “本心”을 따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다.

20절의 경우 “방탕한 자”는 『대표본』(“蕩檢者”)과 비슷하나 “술고래”란 뜻의 RV의 용어(“winebibber”)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 하지만 “스귀지 말며”는 『대표본』(“勿友”)을 따른 번역으로 보인다. RV는 “술고래들 가운데에 들지 말라”(Be not among winebibbers)라고 옮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반절의 “침면 혼 자를 벗 삼지 말라”는 『대표본』(“沉湎者勿友”)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침면”이라는 용어는 33절에서 다시 등장하는 용어이다. RV는 “고기를 탐욕스럽게 먹는 이들 가운데에 들지 말라”(among riotous eaters of flesh)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인 까닭이다. 회보역의 “벗 삼지 말라”도 『대표본』의 “勿友”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이다.

21절 상반절의 경우, 한문 『대표본』은 “술을 무척 탐하고 즐기면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는가!”(蓋饕餮甘酒,必致貧)로 옮길 수 있고, RV는 “술주정뱅이와 술고래는 가난해진다”(the drunkard and the glutton shall come to poverty)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회보역은 좀 다르기는 하나 『대표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RV가 “술주정뱅이와 술고래”라고 두 사람으로 나누어 옮긴 부분을 『대표본』은 그냥 “술을 무척 탐하고 즐기면”이라는 가정의 상황으로 읽은 것을 보면 회보역이 『대표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하반절의 경우, RV는 “잠은 사람을 너마로 옷 입힌다”(drowsiness shall clothe a man with rags)로 옮길 수 있고, 『대표본』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옷이 헤어질 것이다”(思寢之人必衣敝)로 옮길 수 있다. 이 부분도 회보의 번역이 『대표본』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22절에서 회보역은 『대표본』을 따라 동사와 목적어를 한데 묶어 옮겼다. RV는 “너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따로 떼어 읽은 것에 반해, 『대표본』은 “너를 낳은 부모”(父母生爾)라고 읽은 것이다. RV에는 동사의 경우도 “(아버지께) 순종하라…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말라…”로 떼어 읽었지만, 『대표본』은 “마땅히 순종하고 버리지 말라”(宜聽勿棄)로 한데 묶어 번역하였다.

24절과 25절을 한 절로 묶은 것부터 『대표본』을 따른 흔적이다. RV는 두 절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25절의 경우는 앞의 22절과 반대로 한데 붙어 있는 표현을 나누어 옮겼다. 이 또한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흔적이다. 용어 선택에서도 『대표본』을 그대로 따랐는데 특히 “착하다”는 표현이 독특하다. 물론 『대표본』의 “善”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짜딕”(קִטְוֹ)을 “착하다”로 읽은 것은 이 낱말의 뜻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도록 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바르다” 또는 “옳다”로 옮기는 말인 까닭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시편 32:11에서도 같은 말을 “착한 사람”으로 읽은 것과 같은 번역어이

다.

26절 역시 『대표본』을 그대로 따라 옮긴 것으로 보인다. RV의 “내 아들이”를 『대표본』은 “너희 작은 아들이”로 읽었는데 회보는 “너희 적은 아들은”으로 옮겼다. 앞 19절에서 복수로 읽은 것을 여기서는 단수로 읽었다. “너희”라는 복수 형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통일성이 결여된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수와 단수의 구분이 모호한 우리말의 습관 때문인 듯하다. 회보역은 RV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나의”(my)나 “너의”(thy)와 같은 인칭대명사를 회보역은 『대표본』을 따라 모두 생략했다. 동사의 경우도 “(먹음을 내게로) 돌려 보내고”나 “(눈을 도에다) 두어라”라고 읽어 각각 『대표본』의 “歸”나 “注”를 대체적으로 따라 옮긴 경우이다. RV는 각각 “주다”(give)와 “기뻐하다”(delight in)로 읽은 경우이다. 독특한 점은 RV의 “길”(ways)이라고 옮긴 용어를 “도”(道)라는 『대표본』의 용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히브리어 데레크(דרך)를 동양의 “도”라는 개념으로 읽은 훌륭한 번역이다.

27절도 역시 『대표본』에 가까운 부분이다. RV의 “매매춘 여성”(harlot)이라는 용어를 “기성”으로 옮긴 것은 대표본의 “妓女”에서 착안한 듯하다. “김흔 구렁”이라는 번역어는 『대표본』의 “深坑”이나 RV의 “a deep ditch”와 같은 번역어인 듯하다. 하반절의 “음란한 부녀”와 “함정”이라는 용어도 『대표본』의 “淫婦”와<sup>10)</sup> “陷阱”을 그대로 빌려 옮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궂고… 궂히니”도 『대표본』의 “猶…若…”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RV는 “…과 같다”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다”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옮겼다. 따라서 용어뿐 아니라 문장 구조도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구절이다.

28절 역시 『대표본』을 따른 구절로 보인다. 『대표본』의 “隨在匿跡”을 옮긴 듯한 “쳐쳐에 종적을 숨기고”라는 상반절을 RV는 “그래, 그 여인은 마치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린다”(Yea, she lieth in wait as a robber)로 읽는다. 두 역본의 공통점은 “숨기다”는 표현 뿐, “쳐쳐에 종적을”이나 “마치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린다”와는 다른 읽기이다. 하반절의 “사람을 유혹 하여 죄에 빠지게 하느니라”는 표현은 『대표본』의 “以誘人,使蹈罪愆”(사람을 유혹하여 죄와 허물을 따라가게 하다)라는 표현에 가깝다. 이 부분의 RV는 “사람들 중에 범죄자들이 늘어나게 하다”(and increaseth the transgressors among men)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9절은 RV와 회보역이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대표본』은 5개이다. 문장 구조는 그렇지만 회보역의 용어는 『대표본』에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가 환난을 만나며”에서 “환난”은 『대표본』(“誰遭禍患”)을 그

10) RV에는 이 용어가 “이상한 여성”(a strange woma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대표본』의 “淫婦”를 “음녀”로 옮겨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대로 따른 문장 구조로, RV의 두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재앙”(woe)과 “어려움”(sorrow)을 하나로 묶어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누가 송스를 흐며”라는 표현은 RV(“who hath contentious?”)와 가까운 표현으로 “누가 소송을 제기하여 겨루는가?”라고 옮길 수 있는 『대표본』의 표현(“誰起爭競”)보다 훨씬 간략한 해석이다. 하지만 “누가 원망을 미지며”라는 표현은 “누가 불평하는가?”라는 뜻의 RV(“who hath complaining?”)보다는 『대표본』(“誰構怨尤”)에 가깝다. 이어서 나오는 부분에서 『대표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로 읽을 수 있는 부분(出於無因)을 따로 떼어 눈을 붉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RV나 회보역은 똑같이 누가 몸을 상하게 하는가라는 표현에 붙여서 읽었다. 곧 문장 구조상 회보역은 RV를 따른 흔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몸을 상하게 한다든가 눈을 붉게 한다는 부분은 회보역이 『대표본』의 “적신”이나 “신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29절은 문장 구조상 RV를 따르고 용어 선택은 『대표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절의 “오직 밤을 런 흐야 술을 마시며”는 “누가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가?”라는 뜻의 대표본(誰耽麴蘖)보다는 “오래도록 술에 취해 있는 그들”(“They that tarry long at the wine”)이라는 뜻의 RV에 가까운 듯하다.

31절의 경우 대체적으로 『대표본』을 따른 듯하다. “술이… 화창 흔 거슬 보지 마라”는 『대표본』의 맨 앞부분(“勿以觀酒爲樂”)을 그대로 읽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뱀더로 흘너인 후에 느려가면”은 『대표본』의 뒷부분(“入爵則沸,依法而流”)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붉은 빗치 밭 흐며 잔 속에 빗치 아롭다오며”는 회보역의 독특한 해석이다. 이 부분은 『대표본』이나 RV와도 다른 번역인 까닭이다.

32절 역시 대체적으로 『대표본』에 가깝다. 상반절의 경우 회보역의 “나중에”는 『대표본』의 “其終”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나, “不知”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읽었다. 회보역은 “너를 해 흐기느”이라고 읽어 “너”를 강조하여 읽은 반면, 『대표본』은 “술이 뱀처럼 상하게 한다”(酒傷若蛇)고 하여 “술”을 강조하여 읽었다. 이와는 달리 RV는 앞 절과 연결시켜 “술”이란 용어를 생략하고 읽었다. 따라서 상반절은 회보역의 독특한 읽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반절의 “그 독이 독스 꺾흠이라”라는 문장은 그 구조상 『대표본』(“其毒若蝮”)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RV는 “독사처럼 (그 독으로) 쏜다”(and stingeth like an adder)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33절도 『대표본』을 따른 구절이다. 특히 “임의 술에 침면 흐면”이라는 앞 부분은 『대표본』(“既沉湎於酒”)에만 있고 RV에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침면”이라는 용어나 “음란 흔 녀인”과 “싱각 흐느니”라는 표현 모두 『대표본』을 그대로

옳긴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음란 혼 녀인”을 RV는 “이상한 것들”(strange things)로 “싱각 흐느니”를 RV는 “말하다”(utter)로 각각 달리 읽는다.

34절과 35절 역시 『대표본』을 따라 옳긴 구절이다. 35절에서 RV는 이 구절이 술취한 이가 말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너는 말하리라”(shalt thou say)는 표현을 집어넣어 읽었다. 다만 하반절의 “어느새 쯔겻노뇨 흐며 내가 또 다시 술을 좇느니라” (when shall I awake? I will seek it yet again)는 RV를 따라 읽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살펴볼 때 회보역은 곳곳에서 RV를 따른 경우도 있고 또한 회보역의 독특한 읽기를 보이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표본』을 저본으로 삼아 옳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조션 크리스도인 회보」 속의 시편

### 2.2.1. 시편 32편

회보 속에는 두 시편이 번역되어 있다. 시편 32편과<sup>11)</sup> 122편이다.<sup>12)</sup> 시편 32편에는 예배공과로 사용한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번역과 함께 주석과 질문이 함께 실려 있다. 하지만 시편 122편은 예배순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다. 또 다른 점은 시편 32편은 하느님의 이름이 “야화화”(耶和華)로 표기되어 있지만, 시편 122편은 그냥 “여호와”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시편 32편은 문장이 비교적 매끄러운데 반해, 시편 122편은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을 보인다. 먼저 회보의 시편 32편을 RV와 한문성경 『대표본』과 함께 읽어보자.

32:1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一 人得赦其過，而蓋其愆者，福兮，

一 사롭이 즈귀의 죄과를 샹호고 덮는자- 복이며

32:2 Blessed is the man unto whom Jehovah imputeth not iniquity,

And in whose spirit there is no guile.

一 人不爲耶和華所罪，其心無僞者，福兮，

一 사롭이 야화화피 득죄치 아니 흐야 막음의 거긔거시 업는자- 복이로다

32:3 When I kept silence, my bones wasted away

11) 「조션 크리스도인 회보」 제1권 제16호(1897년 5월 19일).

12) 「조션 크리스도인 회보」 제1권 제47호(1897년 12월 22일).

Through my groaning all the day long.

<sup>三</sup>我不言其罪,終日歔歔,筋骨漸衰,

<sup>三</sup>내가 묵묵 하고 종일토록 탄식 하기에 근골이 쇠 하엿도다

32:4 For day and night thy hand was heavy upon me:

My moisture was changed as with the drought of summer. Selah

<sup>四</sup>爾朝夕譴我,精氣漸涸,有如夏日,歎其乾兮,

<sup>四</sup>야화화피셔 죠석으로 나를 칙망 하매 나의 정기 막음이 여름날 쏘임 곳도다

32:5 I acknowledged my sin unto thee,

And mine iniquity did I not hide: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unto Jehovah;

And thou forgavest the iniquity of my sin. Selah

<sup>五</sup>我自任厥過,不匿己非,禱耶和華,曰,我任罪於爾前,爾則赦宥兮,

<sup>五</sup>내가 나-죄를 알어 숨기지 아니 하고 야화화피 빌어 굴으되

내가 나-죄를 즈복하노니 용서 하쇼셔 하노라

32:6 For this let every one that is godly pray unto thee in a time

when thou mayest be found: Selah

Surely when the great waters overflow they shall not reach unto him.

<sup>六</sup>因此敬虔之史,於見納之時,禱告於爾,即使洪水泛濫,災不及身,

<sup>六</sup>이를 인하야 경근 한이가 밧음을 볼 때에 야화화피 빌어

홍수가 범람 하여도 지앙이 몸에 맞치지 안케 하도다

32:7 Thou art my hiding-place; thou wilt preserve me from trouble;

Thou wilt compass me about with songs of deliverance. Selah

<sup>七</sup>予遭患難,爾範衛予,使者得救,故予謳歌爾不禁.

<sup>七</sup>내가 환난을 만나거든 네가 나를 보호 하야 구원 하는 고로

내가 찬송 흙을 굻치치 안노라

32:8 I will instruct thee and teach thee in the way which thou shalt go: Selah

I will counsel thee with mine eye upon thee.

<sup>八</sup>敬虔之史,我將教爾,導爾於當由之途,我將顧爾,訓迪爾衰,

<sup>八</sup>내가 너의를 교훈 하야 맛당히 갈길노 인도 할터이니

32:9 Be ye not as the horse, or as the mule, which have no understanding;

Whose trappings must be bit and bridle to hold them in,

Else they will not come near unto thee.

九勿效騾馬之無知兮,彼爲人繫以繁纓,勒以轡還,否則不能馴從兮,  
 九노시와 말이 지각이 없어서 사람의게 굴네 씨이고 지갈 먹임을 맞고  
 그러치 아니면 순종치 안는거슬 본 맞지 말지어다

32:10 Many sorrows shall be to the wicked;  
 But he that trusteth in Jehovah, lovingkindness shall compass him about.  
 +惡者多憂,恃耶和華者,其沾恩必周渥,  
 +악혼 사람은 근심이 만코 아화화를 맞는 사람은 은혜를 두루 닐는도다

32:11 Be glad in Jehovah, and rejoice, ye righteous;  
 And shout for joy, all ye that are upright in heart.  
 +善人兮,念耶和華之恩,以悅以娛,義人兮,載歡載呼.  
 +착혼 사람은 아화화의 은혜를 생각하야 환락 하고 올혼 사람은 깃버 찬송 하  
 도다

우선 하느님의 이름을 “야화화”(耶和華)로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것이 특이하다. 회보의 시편 122편은 “여호와”로 음역하였다. 따라서 회보의 시편 32편과 시편 122편은 옮긴 이가 다르지 않을까 짐작해본다.<sup>13)</sup>

위의 시편 32편은 다음처럼 『대표본』을 번역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1절과 2절의 “복”(福), 3절의 “종일”(終日)이나 “근골”(筋骨)과 “쇠”(衰)라는 용어는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경우이다. 4절의 “조석”(朝夕)과 “정기”(精氣) 그리고 6절의 “경근”(敬虔)과 “홍슈”(洪水), 8절의 “환난”(患難)과 9절의 “번영”(繁纓)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대표본』을 따라 옮겼지만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4절의 “爾”는 “야화화”라는 실명으로 바꾸어 옮겼다. 『대표본』을 옮기되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우리말 흐름에 따라 실명사로 바꾸어 옮긴 것이다. 3절의 경우 『대표본』의 “我不言己罪”를 회보역은 “내가 묵묵 하고”로 옮기고 “己罪”는 생략하였다. 또한 8절의 경우, 대표본의 “敬虔之士”(경건한 이)는 옮기지 않았다.

특별히 언급해야 할 점은 2절의 “마음”이라는 번역어이다. “마음”이라는 말은 『대표본』을 따른 번역어이지만 매우 탁월한 번역이라고 말해야 한다. 『대표본』의 “心”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히브리성경에는 “루악흐”(לִּמְךָ)라고 되어 있는 말이다. 번역 당시 참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RV에는 “spirit”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 『대표본』을 번역할 때 참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임스왕역』(KJV)에도 역시 “spirit”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신약 마태복음의 팔복(八福)에 나오는 “마음”이

13) 그 이유는 뒤에서 보겠지만 『회보역』의 시편 122편은 한문성경 『대표본』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번역어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더 얘기하기로 한다.

“영”(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을 “마음”(마음)으로 옮긴 것을 오역(誤譯)이라고 한다면 이는 큰 오해이다. 다만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점은 중국어 성경 『대표본』을 옮기되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고 회보역에서 탁사는 의도적으로 “마음”[心]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이 번역어는 이 회보역의 번역이 탁사의 작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시편 32편의 “마음”이라는 번역어는 『구역』과 『신역 신구약전서』(1925)<sup>14)</sup> 그리고 『개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어 “루악흐”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토착화했다는 증거이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점은 마지막 절의 “착한 이”와 “옳은 이”라는 번역어이다. 『대표본』은 각각 “善人”과 “義人”으로 되어 있다. “선인”과 “의인”으로 그대로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 말을 “착한 이”와 “옳은 이”로 풀은 것이다. 『개일역』은 “義人”과 “正直者”로 『개역』은 “의인”과 “정직한 너희”로 옮긴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회보역을 내놓을 당시 참조했음직한 영어 『제임스왕역』(KJV)과 『미국표준역』(ASV)이 모두 “righteous”와 “upright (in heart)”로 옮긴 것과도 다르다. 물론 회보역은 중국어 성경 『대표본』을 따른 것이지만 그대로 음역하지 않고 풀어 옮긴 점이 특이하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각각 “짜디킴”(צַדִּיקִים)과 “이슈레이 레브”(יְשׁוּרֵי לֵב)라고 되어 있다. “바른 이”와 “(마음이) 곧은 이”로도 옮길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용어들을 “착한 이”와 “옳은 이”로 옮겨 이 낱말의 뜻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10절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용어로 “악인”(惡人)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풀지 않고 그냥 두기도 했다. 하지만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를 토박이말로 풀어내어 본디 말의 뉘앙스를 더욱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번역가로서 탁사의 공헌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 2.2.2. 시편 122편

이 시편은 앞서 말한 대로 매일공과에 등장하는 본문이 아니고 1897년 12월 26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드렸던 헌당예배의 예배문 속에 들어 있는 본문이다.<sup>15)</sup> 본문 하반절은 모두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다. 번갈아 가면서 읽기 위

14) 『新譯 新舊約全書』 奇一 역(서울:한국이공사, 1986; 원출판년 1925). 이 『개일역』에는 “(여호와 -定罪치 아니심이여) 마음이 奸詐치 아난者가 福이로다”로 되어 있다.

15)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제1권 47호(1897년 12월 22일). 제1권 45호(1897년 12월 8일)의 마지막 쪽에도 “정동 새로지은 회당을 하늘의 빛침”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려 있다.

헌당식 예배문의 제목은 “회당을 하늘의 드림”이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찬미, 제일공과 력지리락 록장, 돌지공과 회백리인서 십장, 찬미, 시편 일백이십이” 등이 들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헌당 선언이 들어 있다. 이렇게 시편 122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역대하 6장-7장

해 그렇게 인쇄한 듯하다. 앞의 32편과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문을 옮겨보기로 하자. 비교하여 읽기 쉽도록 위에는 RV와 한문 『대표본』을, 아래에는 한글 회보역을 싣기로 한다.

122:1 I was glad when they said unto me, Let us go into the house of Jehovah.

一有邀登耶和華之室,我欣喜不勝兮,  
一내가 깃버 흡은 더들이 날다려 말하기를  
여호와와 의 던에 드러가세

122:2 Our feet are standing within thy gates. O Jerusalem.

一耶路撒冷兮,余足必履其門兮,  
一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문안헤 섰도다

122:3 Jerusalem, that art builed as a city that is compact together:

一耶路撒冷建築城垣,曰堅曰固,既完既備兮,  
一예루살렘아 네가 세운거슨 곳 곳고곳이 완전흔 성과 곳도다

122:4 Whither the tribes go up, the tribes of Jehovah,  
for an ordinance of Israel, to give thanks unto the name of Jehovah.

四耶和華之選民,支派相沿,循以色列族之常例,陟彼高岡,頌美耶和華兮,  
四지파들이 더리로 올라가니 곳 여호와와 의 지파 - 로다  
이 는 이스라엘에 증거하여 여호와와 의 일흠의게 감사하라 흡이도다

122:5 For there are set thrones for judgment, the thrones of the house of David.

五我大闢兮,所有衆子,在彼京師,坐於厥位,以鞠兆民兮.  
五대개 거긔서 심판하는 여러 보좌를 세웠사니  
곳 싸워 의 집 보좌로다

122:6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ey shall prosper that love thee.

六爾曹當禱於耶和華,使耶路撒冷得亨平康,愛斯邑者,必納福祉兮,  
六예루살렘의게 평안흡이 잇기를 기도하게 너를 사랑하는 자의게는 평안흡이

(6.1-2, 17-21, 40-42, 7.1-4)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19-26절)의 일부도 번역하여 함께 실었다.

1900년 7월 18일자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제4권 제29호(합180호)의 5쪽에는 “교회당을 하늘의 밭침”이란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이 글은 담방리 교회의 헌당예배를 알리는 글로 여기에도 시편 122편이 헌당예배문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히브리서 10:1-26, 에베소서 2:18-22, 목시록 21:9-27도 함께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드렸던 헌당예배에는 시편 122편과 히브리서 10장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잇도다

122:7 Peace be within thy walls, and prosperity within they palaces.

<sup>七</sup>願邑中咸亨綏安,宮闈羣邀純嘏兮,

<sup>七</sup>네 성 안에 평안함이 있고

너희 대궐 안에 태평함이 잇기를 원하노도다

122:8 For my brethren and companions' sakes, I will now say, Peace be within thee.

<sup>八</sup>我之昆弟友朋,舍在彼邑,故曰,願彼邑得平康兮,

<sup>八</sup>네 형제와 동모를 위하야

내가 네 안에 평안하라 말 하겠도다

122:9 For the sake of the house of Jehovah our God I will seek thy good.

<sup>九</sup>我上帝耶和華之室,亦在於彼,故願斯邑必蒙綏祉兮.

<sup>九</sup>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집을 위하야

너 잘 되기를 내가 힘 쓰겠도다

예배문 속의 이 시편 본문은 성경공부용의 다른 구약 본문보다 영어성경 RV를 그대로 옮긴 흔적이 많이 눈에 띈다.

1절은 RV의 문장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한문 『대표본』(“有邀登耶和華之室”)은 “여화화의 실에 오르자고 초청한다”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또한 1절 전체를 보아도 회보역의 어순이 『대표본』의 어순과 다르다. 하반절 역시 “나는 더할 나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대표본』의 표현(“我欣喜不勝兮”)과 다른 번역이다. 회보역은 단지 “내가 깃버 함은”으로 옮겨 『대표본』보다는 기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

2절에서 “예루살렘아”라고 호격으로 읽고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대표본』을 따른 흔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발이 네 문안에 섰도다”라는 표현은 RV의 본문(“Our feet are standing within thy gates”)보다는 난하주(“have stood”)를 따라 옮긴 듯하다. 『대표본』의 “余足必履其門兮”이란 표현은 “우리의 발이 반드시 그 문을 밟을 것이라”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3절의 “네가 세운거슨 곳 곳고 곳이 완전한 성과 곳도다”라는 번역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번역이다. RV나 한문 『대표본』도 따르지 않았다. RV는 “함께 간결한 도시와 같이 지어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고, 한문 『대표본』(“建築城垣, 曰堅曰固, 既完既備兮”)은 “건축한 성벽은 견고하며 잘 완비되었나니”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이에 비해 『회보역』은 한문 『대표본』을 약간 따른 것 같기는 하

나 다르다. “네가 세운 거슨 곳 곳고 곳이 완전흔 성과 곳도다”라고 하여 “네가”라는 말을 집어넣었으며, “곳고 곳이”는 『대표본』의 “曰堅曰固”라는 표현을 따른 듯하다. 하지만 “곳도다”는 RV(“as”)를 따른 흔적이지만, “완전흔 성”은 한문 『대표본』(“既完既備”)을 따른 것 같으나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RV(“compact together”)를 따라 옮긴 것도 아니다. “함께 잘 짜여진”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4절 상반절의 “지파들이 더리로 올라가니”는 RV의 “whither the tribes go up”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문 『대표본』(“耶和華之選民, 支派相沿”)은 “야화화의 선민인 지파가 함께 올라간다”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뒤따라 나오는 “곳 여호와와 지파-로다”도 RV(“the tribes of Jehovah”)를 그대로 따른 표현이다. 『대표본』의 “선민”(選民)이라는 말을 차용하지 않고 뒤이어 나오는 “지파”로 바꾸었으며 또한 “주님”이란 용어를 실명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4절 하반절의 (“이스라엘에) 증거하여”는 RV의 난하주(“a testimony”)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대표본』은 “이스라엘 족속의 상례를 따라”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循…常例”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증거하여”라고 하여 RV를 그대로 옮긴 것이 그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와 일흠의게 감사하라 흠이도다”라는 표현도 RV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표본』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린다”(頌美耶和華)는 뜻으로 읽으면서 앞에는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陟彼高岡)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읽었다.

5절은 RV를 그대로 옮긴 구절이다. 한문 『대표본』은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나 다윗이여, 수많은 무리를 소유하고 그 경사로 자리잡고 대궐 자리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국문한다”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6절의 경우도 상반절은 RV를 그대로 옮긴 흔적이 있다. “예루살렘의게 평안함이 잇기를 기도하게”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로 옮길 수 있는 RV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문 대표본은 “예루살렘이 평강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께 꼭 기도하기를 바란다”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곧 회보역은 “여호와”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빼고 옮겼다. 이 점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곳에서는 “님”이란 뜻의 “이”를 대부분 “하느님”으로 실명사화하여 읽었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의게는 평안함이 잇도다”는 사실 RV나 한문 『대표본』과도 좀 다른 번역이다. 영어성경은 “그대를 사랑하는 그들이 번성할 것이다”(they shall prosper that love thee)로 옮길 수 있으며, 한문성경은 “그 읍(마을)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복지를 누릴 것이라”(愛斯邑者, 必納福祉兮)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은 회보역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7절도 RV를 그대로 옮긴 듯하다. “네 성 안에 평안함이 있고”(Peace be within thy walls)라는 RV의 표현을 번역한 것이다. 물론 “성벽”이란 뜻의 “walls”를 『대표본』(“邑”)과 비슷하게 “성”으로 바꾸었다. 『대표본』의 “含亨綏安”을 단지 “평안”으로 줄이고 또한 “宮闈羣邀純嘏”를 단순히 “태평함”으로 표현한 것도 RV를 따른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평안)함이 있고 … (태평)함이 잇기를”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함이 있다”는 번역투는 어색하게 보인다. 하지만 “번영”이나 “잘 뻗어 감”이란 뜻의 RV의 용어(“prosperity”)를 “태평함”으로 읽은 것은 회보역의 훌륭한 번역으로 보인다.

8절 역시 RV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한문 『대표본』은 “내 형제와 친구가 그 읍에 함께 있어 하는 말, 그 성이 평강을 얻기를”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구절이다. 회보의 다른 곳에 실려 있는 구약본문과는 다르게 『대표본』의 용어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9절도 대체로 RV를 따른 듯하다. RV는 “주 우리 하느님의 집 때문에 나는 그대의 좋은 일을 찾아나설 것이다” 등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한문 『대표본』은 “우리는 하느님 여호와의 집, 거기에 거하고 그리하여 그 성이 꼭 잘되어 가기를 빌 것이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표본』은 “또한 거기에 거하여”(亦在於彼)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읽었는데 회보역이나 RV에는 이 부분이 없다.

전체적으로 RV를 따른 듯하다. 『대표본』보다는 RV에 좀더 충실한 번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 『대표본』에서 용어를 차용하여 옮기기도 하고 회보역만이 지니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회보에 실려 있는 성경공부용 구약본문과 비교해 볼 때 RV에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속의 역대기

앞에서 얘기한 시편 122편과 마찬가지로 회보 속에 들어 있는 역대기 본문 역시 1897년 12월 22일의 정동교회 헌당예배문 속에 들어 있는 본문이다.<sup>16)</sup> 역대하 6장에서 뽑은 것인데 헌당예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들어 있다. 1절-2절과 17절-21절, 40절-42절 그리고 7장 1-3절이다. 회보에 실려 있는 예배문에는 6장의 본문은 절 표시가 되어 있는데 7장의 본문은 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위와 마찬가지로 RV와 한문 『대표본』 그리고 회보역을 나란히 신는다.

16)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제1권 제47호(1897년 12월 22일).

6:1 Then spake Solomon, Jehovah hath said that he would dwell in the thick darkness.

一 所羅門曰,耶和華曾云,必居於幽深玄遠.

一 솔노문이 곱으디 여호와피셔 넷전에 닐으샤디 반드시 유심하고 현원 혼디에 거 하시겟다 하셨시니

6:2 But I have built a house of habitation for thee, and a place for thee to dwell in forever.

二 我爲之建殿,永爲駐蹕之所.

二 내가 위하야 성단을 세웠스니 영영 주필 하시쳐소를 삼으소서

6:18 But will God in very deed dwell with men on the earth? Behold, heaven and the heaven of the heavens cannot contain thee; how much less this house which I have builded!

十八 然上帝豈於地乎,穹蒼不足以居爾,天上明宮亦不足以居爾,況我所建之殿乎.

十八 그러나 하늘과 땅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도 족히 거 하시지 아니 할거시오 텃상 붉은 궁에도 또한 족히 거 하시지 아니 하시리니 흠물며 내가 이 세운 성단에 거 하시리잇가<sup>17)</sup>

6:19 Have respect therefore to the prayer of thy servant, and to his supplication, O Jehovah my God, to hearken unto the cry and the prayer which thy servant prayeth before thee:

十九 我之上帝耶和華,垂念爾僕之禱,聽我今日所祈.

十九 내의 하늘과 땅과 함께 사는 하느님의 종의 비는것과 구하는거를 생각하시며 내가 오늘 기도하는거를 드르쇼서

6:20 That thine eyes may be open toward this house day and night, even toward the place whereof thou hast said that thou wouldest put thy name there; to hearken unto the prayer which thy servant prayeth toward this place.

二十 望爾晝夜,垂顧此殿,卽爾曾許必爲籲名之所,爾僕於此祈禱,爾其俯聞,

二十 하늘과 땅과 함께 사는 하느님의 종이 이 성단을 도라 보시기를 바라느니 곳 하늘과 땅과 함께 사는 하느님의 종이 이 전에 허락하사 일홈 부르는 처소를 삼으라 하시리라 하느님의 종이 이 곳에서 기도를 하갓스니 하느님의 종이 드르쇼서

6:21 And hearken thou unto the supplications of thy servant, and of thy people Israel, when they shall pray toward this place; yea, hear thou from thy

17) 회보에는 이 구절의 숫자가 十七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dwelling-place, even from heaven; and when thou hearest, forgive.

二一 凡爾僕及以色列民,祈禱於此,望爾在居處之所,自天俯聽,得蒙赦宥.

二一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텃산 처소에서 드르시고 드르셔스즉 사죄하여 주옵소서

6:40 Now, my God, let, I beseech thee, thine eyes be open, and let thine ears be attente unto the prayer that is made in this place.

四+ 望我上帝眷顧,凡祈求於斯殿者,爾祈俯念.

四+ 우리 하나님이셔 권고하셔서 이 성던에서 기도하여 구하느거슬 하나님이 띄셔 생각하여 주소서

6:41 Now therefore arise, O Jehovah God, into thy resting-place, thou, and the ark of thy strength: let thy priests, O Jehovah God, be clothed with salvation, and let thy saints rejoice in goodness.

四一 耶和華上帝歟,使爾尊榮之法匱,歸於此殿,爲爾駐蹕之所,使爾祭司,蒙爾拯救,使爾聖人,喜爾矜憫.

四一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높흔 영화의 법궤로 하여곰 이 성던에 돌려 보내여 하나님의 쥬필 하시느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스로 하여곰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엇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흔 사름으로 하여곰 하나님이 불상히 녀이심을 깃부게 하소서

6:42 O Jehovah God, turn not away the face of thine anointed: remember thy loving-kindnesses to David thy servant.

四二 耶和華上帝,爾所沐以膏者,勿却其祈,以矜恤爾僕大關爲念.

四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피셔 기름으로 써 바르신자의 기도함을 물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짜윗의게 허락하신 은혜를 불상이 녀이며 생각하소서

7:1 Now when Solomon had made an end of praying, the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burnt-offering and the sacrifices; and the glory of Jehovah filled the house.

一 所羅門祈禱既畢,火自天降,燬其燔祭禮物,耶和華榮光充盈殿宇,

一 솔노문이 이 기도하기를 임의 마치매 하늘노 브터 불이 내려와 번제하느 레물을 불사르고 여호와와 의 영광이 성던에 가득하니

7:2 And the priests could not enter into the house of Jehovah, because the glory of Jehovah had filled Jehovah's house.

一 因是祭司不得入耶和華殿,

二쥬의 영광이 성전에 그득함을 인하여 제스가 여호와와 성전에 드러가지 못한 지라

7:3 And when all the children of Israel looked on, when the fire came down, and the glory of Jehovah upon the house; and they bowed themselves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upon the pavement, and worshipped, and praised Jehovah, saying,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kindness endureth for ever.

三以色列族衆見火降,亦見耶和華榮光覆殿,則俯伏於鋪花石處,崇拜頌讚耶和華,曰,耶和華無不善,恒懷矜憫.

三이스라엘족과 여러 사람이 불이 내려오는 것과 또한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을 덮힌거늘 보고 돌편곳에 엎드려 절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굶아디 여호와는 지극히 착하고 홍상 불상히 넉이심을 품으시도다 하며 왕과 여러 빅성이 여호와압해 제스를 드리더라

6장 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우선 고유명사 표기이다. “솔노문”이란 표기에서 “솔노-”라는 소리는 영어 이름에서 그리고 “-문”이라는 글자는 『대표본』의 마지막 글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느님의 이름은 시편 122편처럼 “야화화”를 “여호와”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회보에 실려 있는 모든 구약 번역본문에는 모두 “야화화”로 표기한 까닭이다. 아직껏 구약이나 신약의 고유명사가 통일되지 않은 까닭에 “여호와”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기인 듯하다. “넷전에 널으샤디”는 『대표본』의 “曾云”을 그대로 옮긴 흔적이다. RV의 “(Jehovah) hath said”라는 시제의 뒤양스를 『대표본』이 강조하여 옮긴 것을 그대로 따른 듯하다. “반드시... 하시겠다”도 『대표본』의 “必居”를 옮긴 것으로, RV의 “(he) would dwell”을 “반드시 거하겠다”라는 말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어 나오는 “유심하고 현원 혼디”도 『대표본』의 “於幽深玄遠”을 용어 그대로 빌어서 옮긴 표현이다. RV(“in the thick darkness”)는 “두꺼운 어둠 속에”나 “어두컴컴한 데에”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6장 2절의 “위하야”는 누구를 위한다는 말인지 불분명하지만 RV는 분명하게 “님을 위해”(for thee)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대표본』의 “爲”를 그대로 따라 옮긴 부분이며, “建殿”을 “성전을 세웠으니”라는 뜻으로 회보역은 옮긴다. 이어서 나오는 “쥬필 하실쳐소”라는 표현도 한문 『대표본』의 “駐蹕之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특히 “駐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이다. 곧 RV가 아닌 한문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전형적인 경우이다.

6장 18절의 경우 “사람과 함께”는 『대표본』에 없는 표현이다. RV의 표현 (“with men”)을 따라 집어넣은 경우이다. 『대표본』의 “穹蒼”을 “공중”으로 바꾼 것이 특이하다. 회보에 실려 있는 창세기의 경우(1898년 6월 22일자 「조선 크리

스도인 회보』 제2권 제25호) 같은 “穹蒼”이라는 용어를 “궁창”으로 그대로 빌려 옮긴 까닭이다. 따라서 여기 역대기 본문에서 히브리어 쇠마임을 “공중”으로 옮긴 것은 정확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다. RV도 “heaven”으로 읽었다. 거듭 나오는 “족히 거 하시지 아니 흘거시오”는 『대표본』의 “不足以居爾”를 옮긴 것이다. RV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님을 포함할 수 없다”(heaven and the heaven of the heavens cannot contain thee)는 뜻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너”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는 『대표본』의 “爾”는 전체 문맥상 옮기지 않은 듯하다.

“턴상 붉은 궁”은 또한 『대표본』의 “天上明宮”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는 『대표본』의 “況”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내가 이 세운 성던”도 『대표본』의 “我所建之殿”을 거의 그대로 옮긴 표현인 듯한데, 이 가운데 “이”라는 말은 KJV의 표현(“this”)을 따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거 하시리잇가”는 『대표본』의 감탄사 “乎”를 “...잇가”로 옮기면서 우리말 문맥상 다시 한번 반복하여 집어넣은 듯하다.

19절에서 “나의 하느님 여호와”를 맨 앞으로 끄집어 낸 것은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하느님의 종의 비는것과 구하는 것”이라는 표현 중에서 “구하는 것”은 RV의 “his supplication”을 따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느님의 종의 비는것”은 『대표본』의 “爾僕之祈”를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대로 옮기지 않고 “님의 종”이라고 읽을 수 있는 “爾僕”에서 “爾”는 “하느님”으로 실명사화하여 읽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드르소서”는 『대표본』의 “聽我今日所祈”를 그대로 옮긴 표현으로 보인다. RV는 이 부분에서 “님의 종이 님께 드리는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도록”(to hearken unto the cry and the prayer which thy servant prayeth before thee)으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곧 회보역은 “울부짖음”(the cry)이라는 표현을 빼고 읽었다.

20절에서 생각해볼 부분은 맨 앞에서 나오는 “하느님피서 주야로 이 성던을 도라 보시기를 바라노니”로 『대표본』(“望爾晝夜,垂顧此殿”)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RV는 “님의 눈이 밤낮으로 이 집에 열려 있기를”이라고 옮길 수 있는 표현(That thine eyes may be open this house day and night)이다. 또한 하반절의 “곳 하느님피서 허락하시 일흠 부로는 처소를 삼으라 하시리라”는 부분도 『대표본』의 “卽爾曾許必爲籲名之所”를 그대로 옮긴 듯하다. RV는 “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even toward the place whereof thou hast said that thou wouldest put thy name there)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6장 21절 상반절의 “하느님의 종과 이스라엘 빅성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이란 표현도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은 『대표본』의 “祈禱於此”와 RV의 “the supplications … when they shall make toward this place”를 그대로 옮긴 듯하다.

6장 21절 하반절의 “하느님이 텃상 처소에서 드르시고”라는 부분은 한문 『대표본』이나 RV와는 좀 다르다. RV는 “그래요, 님의 처소에서, 심지어 하늘에서 님은 들으시죠”(yea, hear thou from thy dwelling-place, even from heaven)로 옮길 수 있다. 한문 『대표본』은 “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늘로부터”(爾在居處之所, 自天)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표현을 회보역은 “하느님이 텃상 처소에서”라고 하나로 뭉뚱그려 옮겼고 “하느님”으로 실명사화하여 옮겼다. 다만 “처소”라는 표현은 한문 『대표본』의 (“處之所”)를 빌려온 듯하다. “드르셨슨즉”은 한번 더 반복하여 “샤죄호여 주옵소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문 『대표본』의 “赦宥”(사유)라는 용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샤죄”(赦罪)로 바꾸어 읽었다. 따라서 이 하반절은 영어성경이나 한문성경과는 다른, 회보역의 독특하고 간결한 번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장 40절 역시 한문 『대표본』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경우이다. RV는 “비오니 님의 눈을 여소서”(let, I beseech thee, thine eyes be open)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느님께셔 권고호서셔”에서 “권고”라는 용어는 『대표본』의 용어(“眷顧”)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하느님”의 경우, 『대표본』은 “나의 하느님”(我上帝)으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데, “아”를 “나” 또는 “내”로 옮기지 않고 “우리”로 옮겼다. 앞에 나오는 6:19에서는 “我之上帝(耶和華)”를 “나의 하느님”으로 옮긴 것을 보면 통일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와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은 무의식중에 “나”보다는 “우리”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러한 혼용이 생긴 듯하다.

“이 성년에서 기도호여 구 호는거슬”도 한문 『대표본』(“祈求於斯殿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RV는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the prayer that is made in this place)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인 까닭이다. 특히 “이 곳”이 아니라 “이 성년”이라는 용어는 한문 『대표본』을 그대로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나오는 “하느님께셔 심각호여 주소서”라는 표현도 한문 『대표본』(“爾祈俯念”)을 그대로 따른 경우이다. RV는 “님의 귀를 …에 귀울여 주소서”로 옮길 수 있다. 다만 “님”이란 뜻의 “爾”를 “하느님”으로 실명사화하여 옮겼다.

6장 41절 상반절의 “하느님의 높흔 영화의 법궤”라는 표현도 한문 『대표본』의 “爾尊榮之法匱”를 옮긴 표현이다. “높흔 영화”로 옮긴 부분을 RV는 “힘”(“strength”)으로 읽었다. 다만 다른 구절과 마찬가지로 “爾”를 “하느님”으로 실명사화하였다. “이 성년에 돌려 보내여”도 한문 『대표본』(“歸於此殿”)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다. RV는 “님의 안식처로 일어나소서”(arise… into thy resting-place)

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느님의 주필하시는 처소”(爾駐蹕之所)나 “하느님의 제스”(爾祭司)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爾聖人)이나 “불상히 너이심”(爾矜憫)이라는 표현 모두 괄호 속에 표기한 것처럼 한문 『대표본』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풀어옮긴 표현들이다. 한문성경의 “爾”를 “하느님”으로 실명사화한 것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RV와 특별히 다른 표현은 “불상히 너이심”(矜憫)이라는 표현이다. RV는 “좋은”이나 “선함”으로 옮길 수 있는 표현 (“goodness”)인데 회보역은 이와는 달리 읽었다.

용어뿐만 아니라 문장구조 면에서도 회보역은 한문 『대표본』을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느님의 주필하시는 처소를 삼으시고”라는 부분이 그렇다. RV가 “님의 안식처로 일어서소서”로 옮긴 부분을 한문 『대표본』처럼 좀더 길게 풀어 옮겼다. 또한 문장의 짜임새도 RV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6장 42절도 대부분 『대표본』을 따른 번역이다. 하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바꾸기도 했다. RV는 “님이 기름부은 이의 얼굴에서 돌이키지 마소서”(turn not away the face of thine anointed)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회보역은 “님께서 기름으로 바르신 자,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라는 뜻의 한문 『대표본』 (“爾所沐以膏者,勿却其祈”)처럼 옮겨, “얼굴”을 “기도”로 대치하였다. “님의 종 다윗의 자비를 기억하소서”로 옮길 수 있는 RV를, 회보역은 한문 『대표본』을 따라 길게 옮겼다. “(다윗의) 자비를”이라는 부분을 “(짜윗의게) 허락하신 은혜를 불상이 너이며”로 옮긴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대표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한문 『대표본』은 “궁홀로 님의 종 다윗을 생각하소서”(以矜恤爾僕大關爲念)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곧 “궁홀”을 “허락하신 은혜를 불쌍히 여기며”로 풀어 옮겼다. 곧 회보역의 독특한 해석이라 말할 수 있다.

7장 1절은 영어성경이나 한문성경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 회보역이 한문 『대표본』과 같은 점은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 쓰고 있는 점이다. “번제하는 제물을 불사르고”는 한문 『대표본』 (“燬其燔祭禮物”)의 용어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다만 한문 『대표본』이 “殿宇”라고 한 것을 RV는 단지 “집”(the house)이라고 하였고, 회보역은 “성전”으로 읽은 점이 다를 뿐이다. 회보역이 한문 『대표본』을 따르기는 했으나 용어 선택에도 나름의 취사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장 2절은 『대표본』이 빠뜨린 부분을 RV를 따라 더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곧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인하여”는 RV의 “because the glory of Jehovah had filled Jehovah’s house”를 그대로 옮긴 까닭이다. 특별히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영광”은 『대표본』의 용어를 빌어온 것이지만, “주”라는 용어는 KJV의 “the Lord”를 따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앞 절(1절)에 “여호와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KJV에서는 본 절(2절)처럼 똑같이 “the glory of the Lord”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이 똑같은 표현을 옮기면서 앞 절에서는 한문 『대표본』을 따랐고 여기서는 RV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용어는 “제스”라는 용어이다. 『대표본』(“祭司”)을 그대로 따른 흔적이다. 회보의 다른 곳(1898년 10월 12일자 제2권 제41호)에서는 창세기 14:18에 나오는 이 용어를 “제스장”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경우인 듯하다.

7장 3절에서는 “여호와는 지극히 착하고 홍상 불상히 너이심을 품으시도다”라는 부분이 회보역의 독특한 부분이다. “여호와는 선의 없음이 없다”로 옮길 수 있는 한문 『대표본』(“耶和華無不善”)을 회보역은 “(여호와)는 지극히 착하다”로 읽었다. RV(“he is good”)가 단지 “그분은 선하다”나 “그분은 좋다”라는 뜻으로 옮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극히”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것은 한문 『대표본』의 “無不”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회보역의 “착하다”는 표현이 독특하다. “홍상 불상히 너이심을 품으시도다”는 표현은 한문 『대표본』(“恒懷矜憫”)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RV는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다”(his lovingkindnesses endureth for ever)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회보역은 “왕과 여러 빅성이 여호와압헤 제스를 드리더라”라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RV나 한문 『대표본』에도 없는 부분이다. 어디에서 이러한 독법이 비롯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 회보역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회보역은 한문 『대표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때로 RV로 고쳤으나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회보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역대기 본문은 회보 속의 다른 구약본문보다도 더 독특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 4. 맺는 말

탁사 최병헌 목사는 1897년부터 1905년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매 주마다 발행한 『조선(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의 주필을 맡으면서 주도적으로 이 회보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그는 성서번역 작업을 했으며, 이 성서번역을 통하여 그의 토착화 작업도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시편(32편, 122편)과 잠언(23:19-35) 그리고 역대기(대하 6:1-2, 17-21, 40-42; 7:1-3)는 1898년에 나온 『시편촬요』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번역 본문이다. 본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성경공



부 용 본문인 시편 32편과 잠언 23장은 한문 『대표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본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배문 속에 들어가 있는 시편 122편은 RV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예배문 속에 들어 있는 역대기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한문 『대표본』을 주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가 가설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은 이렇다. 성경공부 용으로 번역한 구약본문은 모두 탁사가 한문 『대표본』을 저본으로 번역하였으며, 예배문 속에 들어가 있는 시편 122편은 아펜젤러의 번역일 것이라는 점이다. 정동제일교회 헌당예배문을 작성하고 예배를 인도한 이가 아펜젤러이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기 본문은 예배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한문 『대표본』을 많이 따른 흔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펜젤러의 한글 번역본문을 탁사가 한문 『대표본』을 보면서 다시 검토하여 고치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역대기 번역본문은 다른 한글번역과 다르게 또한 독자적인 번역이 눈에 많이 띄는 까닭이기도 하다. 위의 번역문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탁사는 한문 『대표본』을 번역하면서도 때때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번역을 신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한글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는 번역어와 표현은 이렇게 탁사의 처음 구약번역 본문부터 한문 『대표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탁사 최병헌은 종교신학자로서 이렇게 성서번역을 통하여 토착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 주요어

최병헌, 탁사, 성서번역, 조선(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최초의 구약성경 번역가, 토착화.

Choi Pyeng Heun, Bible translation, the first Korean translator of the Old Testament,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theological indigenization.

\* 참고문헌

『鮮漢文 創世記 改譯』 경성: 대영성서공회, 1925.

『창세기 지역』 경성: 대영성서공회, 1925.

『文理 新舊約聖書』 聖書公會, 1933(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FBS (Ed. No. 2908)).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merican Standard Version.*  
The American Revision Committee, ed.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for American Bible Society, 1901.

아펜젤러, 헨리 G., 『헨리 G. 아펜젤러의 보고서』 조성환 역주, 대전: 배제대학교 출판부, 1997.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 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1986), 108-118.

민영진, “『改譯』 사무엘上下의 원역본: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사무엘上下의 MT 反影程度 및 1, 2차 개정본문과의 비교,” 『신학과 세계』 14(1987), 5-42.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천주교와 개신교의 만남』,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09-505.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崔炳憲, 『聖山明鏡』, 京城: 東洋書院, 1911.

崔炳憲, 『萬宗一禱』,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최우익 편저, 『崔炳憲先生畧傳』, 서울: 정동삼문출판사, 1998.

한국감리교회사학회 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1 (1897.2.2-1898.12.28)」, 서울, 1986.

한국감리교회사학회 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2 (1899.1.4-1900.3.29)」, 서울, 1986.

Reynolds, W. D., “Bible Translation in Korea”, *The Korea Repository* 3 (1896), 469-474.

<Abstract>

An Analysis of the Korean Translation Texts (Pro 23, Psa 32, 122, 2Ch 6-7) by Rev. Choi Pyeng Heun, a Bible translator,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Prof. Hwan-Jin Yi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Rev. Choi Pyeng Heun as the first Korean translator of the Old Testament. Rev. Choi was the first Korean theologian who tried to have Christianity take root in the soil of Korea. His theological work of indigenization began with Bible translation.

During 1897-1905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was released weekly by Rev. H.G. Appenzeller, the first Methodist missionary in Korea. Rev. Choi worked as an editorial writer for this journal. In addition, he translated some books of the Bible into Korean for the same journal, including Genesis, Samuel and Kings; and went on to translate portions of the Hagiographa such as Psalms, Proverbs and Chronicles.

When we compare these translation texts in the Hagiographa (Psa 32, 122, Pro 23, 2Ch 6-7) with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published in 1854) and the English Revised Version (published in 1885), we realize that the Chinese Bible is the Vorlage of the Korean translation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It is assumed from the comparison that Rev. Choi was the translator of the Old Testament texts. Rev. Appenzeller cannot be regarded as the translator of the Old Testament texts in the journal because he would not be good at Chinese. Unlike him, Rev. Choi excelled in Chinese to the extent that he quoted Confucian texts freely in most of his theological works including the editorials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Up until now, the selective translation of Psalms by Alexander Pieters has been taken a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That translation was released in 1898; however, the translation texts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were released in 1897. In particular, some portions of the Hagiographa showed up in the journal in 1897. Therefore Rev. Choi should be honored as the first Korean translator of the Old Testament. Bible translation work was the starting point of his theological indigenization.